

2015 thebell Venture Forum

1. 귀사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더벨은 오는 12월 15일 「농식품모태펀드의 위상과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2015 thebell Venture Forum」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3. 농업과 수산업 등은 정부 차원에서 단순히 보조금과 융자금을 쏟아 부어야 하는 낙후된 산업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농식품모태펀드가 조성된 이후 농업 정책자금의 패러다임이 전환됐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금융지원시스템 자체가 민간과 함께 고민하고 투자하는 방식으로 바뀐 셈입니다. 특히 민간 투자자에도 농업이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산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4. 이번 포럼은 국내 유일의 민간 모태펀드로 성장하고 있는 농식품모태펀드의 1기 출자사업 성과를 살펴보고, 정책자금과 산업의 동반자적 성장 성공사례분석, 농식품모태펀드의 2기 출자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5. 농식품모태펀드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행사 개요

- 행사명 : 2015 thebell Venture Forum
- 주제 : 농식품모태펀드의 위상과 활성화 방안
- 일시 : 2015년 12월 15일(화) 오전 10시
- 장소 :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 아트rium 3층
- 주최/주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머니투데이 더벨
- 후원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해양수산부, 머니투데이

협조요청사항 귀사 임직원 참석

- 참가혜택 : 자료집 제공, 중식 제공
- 참가비용 : 무료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thebell.co.kr) > 포럼 팝업창 클릭 > Introduction > 참가신청

- √ 휴대폰 승인코드 문자 수신자에 한해서만 입장가능합니다.
- √ 신청여부는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자동 등록)
- √ 120명 선착순 마감

기획 취지

- 농수산식품모태펀드(MIFAFF Fund of Funds) 운용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그 동안 농림수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융자 중심의 자금지원을 투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 뿐 아니라 전문 투자 심사역이 벤처투자업계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 농식품모태펀드는 설립 5년 만에 6500억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단일 사업분야에서는 손에 꼽을 정도로 큰 금액입니다. 투자성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출범초기의 우려와 달리 영세한 농림수산기업을 지원하는 정책목적도 달성하면서도 높은 평가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부 펀드와 투자종목에서는 이미 수익을 확정하기도 했습니다.
- 벤처투자업계의 인식도 확 달라졌습니다. 중대형 벤처캐피탈도 농식품투자조합을 운용하기 위해 도전하고 있을 정도로 업계내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 머니투데이 더벨은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5년간 농식품모태펀드의 성과와 발전 방안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농금원이 농식품모태펀드를 운용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논의해볼 예정입니다.

행사 개요

- 주제 : 농식품모태펀드의 위상과 활성화 방안
- 일시 : 2015년 12월 15일(화) 오전 10시~오후 1시(중식 포함)
- 장소 :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 아트리움 3층
- 주최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머니투데이 더벨
- 후원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해양수산부, 머니투데이

프로그램

* 사회 : 김형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전무

시간	내용	발 표 자
09:30~10:00	접수 및 티타임	
10:00~10:10	개회사	박종면 머니투데이 더벨 대표 홍성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원장
10:10~10:30	Session 1: 농식품모태펀드 태동과 성과	김상경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원팀 과장
10:30~11:00	Session 2: 농식품투자조합 운용현황 및 투자사례(사례를 중심으로)	김정현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 대표 정 훈 유큐아이인베스트먼트 상무
11:00~11:20	Session 3: 농식품모태펀드 발전방안	이태호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11:20~12:00	패널토론	(상기 발표자 외) 강 용 한국농식품법인연합 회장 박준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12:00~13:00	중식	

* 상기 일정 및 발표 주제는 발표자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